

**돈과 마음: 소비와 축적의 심리학**

Money and Mind: Psychology of Consumption and Accumulation

(사)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연차학술대회가 8월22일(목)부터 24일(토)까지 3일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 대회는 회원 여러분들이 그 동안 공부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심리학적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의 장입니다. 동시에 여러 업무로 소원하게 지낸 회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친목의 장이기도 합니다.

이번 연차학술대회의 첫 날에는 「돈과 마음: 소비와 축적의 심리학」이라는 주제의 대외심포지엄이 열립니다. 돈이라는 주제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내용이나 형태는 다양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련한 의미나 영향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에 돈이라는 문제가 우리와 삶과 관련해서 어떤 심리적인 관련성을 가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먼저 돈과 마음의 관계를 여러 이론과 근거를 통해 고찰한 다음, 돈의 소비와 축적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나 현안을 논의해 볼 것입니다.

둘째 날은 매우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저희 심리학회 산하 15개 분과학회에서 준비한 통상적인 심포지엄 및 회원들의 포스터 발표와 함께, 외부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꾸민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의 특별심포지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직면하는 여러 방법론적인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. 또한 자살이라는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.

이번 연차학술대회의 마지막 날인 셋째 날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뿐만 아니라, 심리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에게 심리학을 소개할 수 있는 소위 「심리학 교실」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.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특별히 남달라, 이번에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.

오늘날 심리학은 어느 학문보다도 그 관련 범위가 넓습니다.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심리학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입니다. 또한 심리학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 짧은 시간에도 새로운 지식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심리학회가 주체하는 이 번 연차학술대회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데 큰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

(사)한국심리학회장  
조현섭



연차학술대회 조직위원장  
정태연

